



5면

“학생 교육에 써주세요” 전북대에 발전기금 ‘쾌척’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음 3월 21일) 제2515호

대표전화 (063)288-9700

## 전주병 · 군산 · 남원 접전

전북도내 박빙지역을 가다

전주병 정동영 · 김성주 9.3%p

군산 김관영 · 신영대 2.6%p

남원 이용호 · 이강래 10.4%p

21대 총선 2일을 남기고 전북도내 선거구 중 전주병, 남원, 군산 지역 3곳 선거구가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내 접전지역 중에서 남원, 군산 무소속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전주병 선거구도 치열한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8일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실시한 전주병 투표지지도 결과 민주당 김성주 후보 47.2%, 민생당 정동영 후보 37.9%로 9.3%p 차이를 보였다.

군산은 무소속 김관영 47.1%, 민주당 신영대 44.5%로 2.6%p 차이로 초접전으로 나타났다.

군산은 무소속 이용호 후보 49.2%

대 민주당 이강래 후보 38.8%로 10.4% 격차를 형성했다. <관련기사 3면>

여론조사 결과 주목 할 부분은 민생당 정동영 후보의 활약과 무소속 후보 강세이다.

먼저, 전주 병은 지난 총선에서 정동영 후보와 김성주 후보가 격돌했던 곳이며,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두 후보가 만났다.

처음 두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김성주 후보가 크게 앞섰지만, 방송 토론 회와 선거일이 다가 올수록 두 후보 간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두 후보는 전력이 특이하다. 정동영 후보와 김성주 후보는 서울대 국사학과 선배 사이 이면서, 고등학교도

또한 같은 선배이다. 민생당 정동영 후보는 31대 통일부장관과 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였다. 정 후보는 그동안 4년 동안 지역구를 위해 전주역사 신축 선정되는 부분 기여와 전주 동부 IC 도로 확장 부분 등을 들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후보는 19대 국회의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번이 국회 두 번째 입성 도전이다.

군산 선거구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신영대 후보간 초 접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이다.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튼튼한 유권자층들의 감정을 보여 줬다.

상대 민주당 신영대 후보도 초선에 도전 하면서 오차범위 안에서 싸움이다.

남원 선거구는 그 전 까지만 해도 초 접전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를 벗어 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용호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10.4% 앞선 결과로 집계 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특별취재반

## 김성주 “재산 신고 누락 인정”

“재산신고 과정 실수, 선관위 통지 받고 사실 확인” 해명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주병)가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시하며 선관위의 고발을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11일 정동영 후보측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시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했다”며 “자신이 소유한 한누리넷 50% 지분인 출자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번 신고에서 누락한 출자금 1억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

는 신고해 지난해 3월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용”이라며 재산 누락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는 한누리넷을 직원 몇 명 없는 작은 업체라고 하지만 후보자가 전북도의원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관보에 신고한 매출액이 매년 20억 원”이라며 “입찰담합과 관공서 납품이 이미 밝혀진 것으로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와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성주 후보도 즉각 회견을 열어 재산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김 후보는 “백지 신탁된 주식을 누

락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후보 재산 신고 때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를 받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지난 24년간 단 한 번도 전주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는 서울 강남에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전주에는 송전동 에코시티에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전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전주에 집을 소유하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주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선관위가 지난 8일 김 후보측에 누락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취재반

## 송하진 지사 “참정권은 신성한 권리”

사전투표 첫날 대도민담화 “소중한 한 표 행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북도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10일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미증유(未證有)의 바이러스 위기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참정권은 절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도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21대 총선이 공정하고 또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군과 함께 철저한 방역을 이행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해 도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를 안심하고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지사는 도민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의 진정한 힘은 참여하는 국민에게서부터 시작되며 이번 총선이 아날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표장을 방문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힘차게 열어가자”고 한 표행사를 호소했다. /김진성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 전북도, ‘감성주점’ 5곳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위반엔 업주·이용객 모두 처벌

코로나19 관련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도내 ‘감성주점’ 5곳에 열흘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돼 이 기간 행정명령을 어기면 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도 처벌받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도지사 자체명령으로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내린 ‘감성주점’ 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

여 운영제한 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도는 지난 8일 ‘감성주점’에 대해 운영제한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방역 지침 준수사항을 안내했고, 9일 운영제한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점검 결과 이 업소 5개 업소는 출입자 명단, 종사자 마스크, 시설이용

차 최소 1~2m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개 업소는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김진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